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재판 배심원들

문소리 “원칙에 충실한 판사 되려 노력”



문소리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사의 느낌을 어떻게 낼지 고민했습니다.” 배우 문소리(45)가 영화 ‘배심원들’에서 판사로 분한다. ‘배심원들’은 2008년 대한민국의 첫 국민참여재판을 배경으로,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8명의 보통 사람들이 배심원단으로 선정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문소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 김준겸을 맡았다.

8일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에서 열린 ‘배심원들’ 제작보고회에서 문소리는 “김영란 전 대법관 등 여성 판사들을 만나보고 국민참여재판 참관하면서 공부했다”고 판사 역할을 하기 위한 그동안 노력을 전했다.

그는 “그런데도 (판사들이) 법정에 서 보내온 오랜 세월을 내가 담아낼 수 있을까 걱정됐다”며 “몰입하려고 법에 관련된 것 많이 읽어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판사 역할의 어려움도 털어놨다. 문소리는 “세트 안에서는 고개를 돌리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연기가 별로 없었다. 그동안 핸드볼도 하고 무용도 하고 몸을 쓰는 연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법복이 저를 묶어놓은 것 같다”며 웃었다.

이어 “태도, 느낌, 음성에 집중해야 했다”고 말했다며 “제 안에서부터 법조인의 느낌이 나오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돌아봤다.

곧 입대를 앞둔 박형식은 ‘배심원들’로 처음 영화 주연에 도전한다. 그는 8번 배심원 권남우를 연기한다. 권남우는 포기를 모르는 청년 창업가로, 끈질기게 질문과 문제를 제기하는 인물이다. 그는 “배심원들이 주인공인 영화라서 하고 싶었다”며 “아직 제가 주연을 맡기에는 겁이 있는데, 선배들과 함께해서 배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드라마 ‘슈츠’에서 변호사를 연기했던 그는 “변호사와 배심원은 정말 달랐다. 드라마에서는 천재 변호사였는데 ‘배심원들’의 권남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항상 궁금해한다. 상반된 캐릭터라 연기하는 것이 재밌었다”고 말했다.

문소리는 박형식과의 호흡에 대해 “처음에는 너무 맑고 화사해서 배심원들 사이에서 혼자 튀지 않을까 했다”며 “그런데 촬영하고 나니 권남우 자체가 돼 있었다. 처음부터 저에게 ‘누나’라고 하면서 편하게 다가왔다”고 웃었다.

박형식 외에 나머지 배심원들로 백수장, 김미경, 윤경호, 서정연, 조한철, 김홍파, 조수향이 출연한다.

연출을 맡은 홍승완 감독은 “평범한 사람들이 알뜰결에 재판에 참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변화하는 과정, 그리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장 역시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변화하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농작물 산지폐기 해법 모색한다

광주CBS 11~12일, CMB광주 22일 토론회 녹화 방송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산지폐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 CBS와 CMB 광주방송은 “9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차평동 CMB 광주방송에서 ‘농작물 산지폐기 약순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11일과 12일 오후 5시 5분부터 광주CBS매거진 시간에 1~2부로 나누어서 녹음 방송되며, CMB광주방송에서는 오는 22일 오후 8시 집중토론 코너를 통해 녹화 방송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김경희 유통소비정책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병욱 연구위원, 전남겨울채소생산자협회(준) 박길성 회장 등이 참여한다.

다. 사회는 주정민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맡는다.

토론회는 ‘산지폐기의 실태, 얼마나 심각한가’, ‘산지폐기 약순환 근본적인 원인’, ‘산지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 등 3개 소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산지폐기는 과잉 생산으로 시장 가격이 급락할 때 가격 회복을 위해 농산물 출하량을 줄이는 자구책으로 ‘풍년의 역설’로 불린다.

올해는 배추와 대파, 양파, 양배추, 무 등 품목에서 4년 만에 대대적으로 산지폐기가 이뤄지고 있다. 광주 CBS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농작물 산지폐기에만 5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약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기 기자 young@



박형식

꾼대 vs 신입... 리얼 오피스 스토리

신화 김동완 주연, KBS2 '회사 가기 싫어' 오늘 첫방

나는 ‘꾼대’일까, ‘신입’일까.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이라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오피스 스토리가 온다. KBS 2TV는 오는 9일 새 화요일 ‘회사 가기 싫어’를 선보인다. 8일 밝혔다.

지난해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방송해 직장인들의 애환을 실감 나게 다룬 이 프로그램이 올해는 아예 드라마로 편성돼 시청자를 다시 찾는다. 제작은 지난 시즌에 이어 시사교양국에서 맡아 다뤘던 터라 뽀짝한 현실을 반영할 예정이다.

주인공 젊은 꼰대 강백호는 가수 겸 배우 김동완이 맡았다. 김동완은 8일 제작발표회에서 “강

백호는 꼰대가 싫어서 벗어나고 싶어 고민하다가, ‘꼰대로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제대로 살아보자는 젊은 꼰대구나 싶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 신화를 20년 넘게 하면서 조직 생활의 흥망성쇠를 겪었다. 많은 일을 겪고 ‘그만둬야 하나’ 생각할 순간도 있었지만 하다 보니 ‘천직이다’ 싶다”라며 “저도 이미지와 다르게 꼰대다. 아이들을 20년 이상 하다 보니 후배들을 보고 ‘안돼’라고 잔소리를 한다. 이번에는 연기로 내놓고 얘기하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총 12부작으로 오는 9일부터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 방송. /연합뉴스

박형식 “배심원들이 주인공인 영화라 선택”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⑥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2019 메이저리그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⑨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10 좋은 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⑪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국민 여러분(재)		00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⑫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00 12 MBC 뉴스 25 다큐 나는...산다 스페셜	00 제33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1~2부
①	00 KBS네트워크특선 거북이 뉴스 50 제31회 한국PD대상 시상식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2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어트 55 2시 뉴스 외전	
②				
③	25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식	00 자동차부착성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바 55 뽀뽀보 모두야 놀자	
④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35 MBC스포츠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대한민국 vs 아이슬란드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⑤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⑥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영재발굴단(재)
⑦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원손집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⑧	30 비켜라 운명아	30 클로벨24 55 국민 여러분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⑨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 <이병희>			
⑩	00 시사기획 창 55 UHD 습터	00 국민 여러분	0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00 해치
⑪	00 오늘밤 김제동 40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획 결아서 세계속으로	10 회사 가기 싫어 2019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⑫	30 KBS 뉴스 40 KBS 결자 다큐멘터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05 100분 토론	4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로보가 폴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7:45 띠띠뽀 띠띠뽀(재)
06:00 한국기행(재)	12:10 미래교육 플러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큐 오늘	19:00 미니특공대 X
07:00 너티니츠	<폭탄먼지벌레의 독가스 전략>	19:30 EBS 뉴스
07: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8:00 당동명 유치원1~2	13:40 사건 브리핑 - 안전상황실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띠띠뽀 띠띠뽀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안데스 방랑기 2부 안데스 오지마을에 산다>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9:00 뽀뽀뽀 뽀뽀로	15:15 탈영 구조대	<두벽두벽 섬진강 2부 지리산 사랑꾼>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45 몬카트	21:50 EBS 다큐프라임
09:40 극한직업 스페셜	16:15 짝과 팡	22:45 조식포함 아파트
10: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3:55 모두의 모바일 MOMO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5 당동명 유치원1~2	
<달날개 간장조림과 시금치채소전>	17:15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9일(음 3월 5일 丙子)

<p>子 36년생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없으나, 48년생 감각이 절실히 요구 되는 상황이니 실무에 능해야 한다. 60년생 탄력적이라면 진척을 보이게 될 것이다. 72년생 판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84년생 참신한 발상은 성공을 이끌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03, 62</p>	<p>午 42년생 상호간에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54년생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66년생 겨울과 같아서 한 번 금이 가면 회복할 수 없다. 78년생 본전만 찾아도 다행이나, 90년생 드디어 고강도의 조치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95, 66</p>
<p>丑 37년생 상대의 모호한 반응으로 답답할 수다. 49년생 대사를 도모하는 판국이 펼쳐질 것이다. 61년생 기존에 있어 왔던 것이니 다루기가 용이 하겠다. 73년생 지난 일이 워매인다면 동력이 약화 되리라. 85년생 한 번 시작 되면 슬슬 풀려 나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5, 86</p>	<p>未 43년생 중일 내리는 소나기는 없는 법이다. 55년생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의미가 있다. 67년생 변동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생긴다. 79년생 신은 결코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 법이다. 91년생 신중해야만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8, 02</p>
<p>寅 38년생 상하좌우로 안배를 잘 해야겠다. 50년생 부담스럽다면 가끔씩 조용히 피해 나가자. 62년생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오해할 수 있다. 74년생 목표로 하였던 바를 성취한다. 86년생 몇 갑절의 노력을 경주해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3, 18</p>	<p>申 44년생 행편이 점점 향상될 것이니 차분하게 기다리자. 56년생 주관과 소신은 가지도 대세에 편승하라. 68년생 파격적인 전환이 절실히 요구 된다. 80년생 고강도의 조치만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 92년생 희망의 세계로 진입하는 형세이다. 행운의 숫자 : 30, 54</p>
<p>卯 39년생 경험에서 얻어지는 인식이 유용하리라. 51년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진중하게 노력해야 할 때다. 63년생 생김새가 기특하고 정리해둬야 후사를 도모할 수 있다. 75년생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87년생 미흡했던 점이 해소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1, 45</p>	<p>酉 45년생 불협화음이 예상되나 길사로 전환 될 수 있다. 57년생 일의 선수를 정한 다음에 증점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69년생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 기대해 볼만하다. 81년생 분명한 책임 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93년생 가히 납득이 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0, 05</p>
<p>辰 40년생 선행을 하고도 빛을 보지 못 할 수이다. 52년생 객관적인 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64년생 과거의 관행과 전형을 따랐을 때 완성도가 높아진다. 76년생 사이에 끼여서 난처하게 될 것이나, 88년생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매우 불편하리라. 행운의 숫자 : 22, 41</p>	<p>戌 34년생 기존의 방법을 써야 효과적이다. 46년생 개선할 수 있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58년생 의견이 분분하니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70년생 배편다면 인심을 잃지 않는 법이다. 82년생 내면의 실속뿐만 아니라 형식과 외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09, 38</p>
<p>巳 41년생 변함없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3년생 성급하게 임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처리해야만 하리라. 65년생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라. 77년생 계속 되어야만 유익한 성취에 이른다. 89년생 근본을 살펴보면 갈 길이 정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1, 29</p>	<p>亥 35년생 겉으로만 봉합되어 있는 상태이다. 47년생 열과 성으로 공을 들인다면 꼭 이루어질 것이다. 59년생 쉽게 융합 될 수도 있으나, 71년생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지치기를 잘 해야겠다. 83년생 고통은 미래의 희망을 여는 활력소가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6, 51</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팀 ☎010-9790-8237